

## 자연과의 작업: 한국현대미술 내의 전통사상

Lewis Biggs, (테이트 갤러리 큐레이터), 1993

테이트 갤러리에서 전시한 한국 현대미술가 중 이강소는 가장 연소한 미술가이며, 비록 그의 예술적 발전이 점차 그의 윗세대에 가까워졌을지라도 실제로는 다른 세대에 속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현대 도시생활의 '동시대적' 기호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그 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더불어 작업한다는 맥락에서 더 깊은 에너지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70년대네 그는 일상 오브제들의 판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는 팝아트 운동과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연적' 형태들(대나무 숲, 산 닭)을 화랑 공간 안에 들여놓은 설치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 닭은 흰 닭이었고 백묵으로 그은 원형 안에 묶여 있었다. 이것은 삼차원으로 된 모노크롬 운동으로서 어떤 '자연적인 것'의 순수성이란 메시지를 갖는 게 아니었을까?

80년대 초 그의 작품에서는 팝 이미지들보다 자연적인 풍경의 형태가 우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1985년이 되어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의식적으로 '현대적' 형식과 '전통적' 형식 사이에서 작업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그는 그 자신의 흑백 사진들(이를 테면 호수 위의 오리들을 찍은 것)을 왼손에 참고로 들고 작업한다. 비록 그 회화들은 우화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마치 전통적인 수묵화인 양 만들어지며, 축축한 바탕 위에서 신속하게 행해진 붓질의 속도감이 굉장하다. (전통미술에서 먹이 종이에 흡수되는 양은 붓의 속도에 달려 있다.) 작업 방식 이외에도 그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은 전통의 '에너지'이다. 즉 고대적 형태에 매어 달린 의미와 연상의 축적이다. 이러한 '주어진'연관과 의미들을 갖고 작업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긴 하지만 초극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사실상 '풍경'도 '형상'도 이강소가 찾으려는 준거는 아니다. 그는 개념에 관계하며, 우리가 선이나 톤의 형성체를 지각할 때의 경이의 순간에, 우리의 지각이 기억으로부터 축적된 연상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관계하는데, 이는 지각과 개념이 동일해질 때를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에게 단순성이 가장 본질적이다. 어떤 특수자나 개별자도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이미지의 에너지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 서양적인 용어로 그는 브랑쿠시(Brancusi)가 설정한 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전통적 장르의 부활이 그것이다.

그의 이미지(오리, 사슴은 한국에선 '길상'의 동물이다), 이 이미지들에 공통되는 요소는 자유의 이념이다. 그것들은 '자유롭게 떠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대상 중에서 배가 가장 애니메이트된 것인 듯하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며 배에다 성격, 성, 그리고 나름의 생명을 부여한다. 이 이미지들이 취급되는 방식은 비개인적이며, 미술가의 정신구조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자연'을 신비화하여 공동체의 기억으로 환원시킨다. 이러한 원형들은 그 뒤면에 한 움큼의 정서를 촉발하는데 이는 (물감의 제스처와 톤으로 전달된다) 가볍고 사랑대며 서정적인 것에서부터 폭풍우치고 번쩍이는 것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그것들은 의식적으로 특수한 것 내지 개인적인 것로부터 자유롭게 떠돈다. 청색은 이 같은 이유로 선택된다. 청색은 무학과 가없는 공간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회화들 속에서 지배적인 이미지는 '그리마'내지 부차적 이미지를 뒤켤에 갖는 듯하다. 나는 이강소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았다. 배 그림에서 그들은 마치 지속, 시간 경과의 감각을 내는 듯한데 이는 마치 조금 전에 배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유지되는 잔상인 듯하고, 하지만 오리들에서는 이미지들이 중첩된 것 같다고.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자연은 복수인데 반해 인간의 산물은 단수라고.